

함께하는 마음 | 길에서 찾은 건강, 길에서 만난 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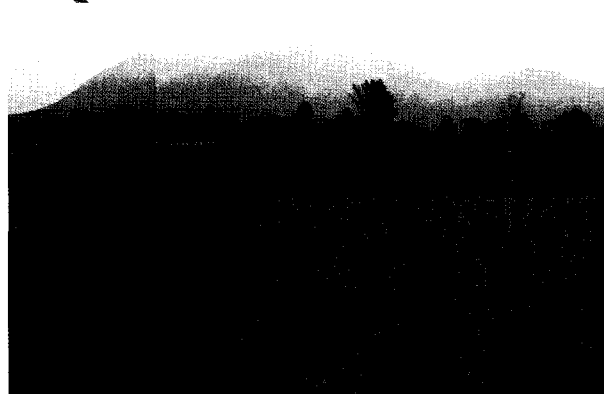
기차 여행의 낭만과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실례마을' 여행

가을 속으로 걸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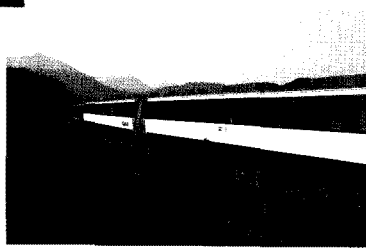
누렇게 익은 가을 들판과 문학의 향기 가득한 실례마을은 햇살과 안개가 섞여 먼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속으로 옮긴 발걸음이 먼저 걸었던 김유정의 발자국에 포개진다. 여행과 문학의 공통점이 '나를 찾아가는 길' 이므로 이번 여행은 두 배의 감동으로 다가왔다.

✎ 사진 장태동(여행칼럼니스트)





① 김유정의 기적비 ② 실레마을 가을풍경. 저 뒤 산줄기 어디쯤에 옛 금광이 있다. ③ 김유정역



아련한 추억이 남겨진 기차여행으로 시작되는 실레마을 여행
넓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손등에 내려앉는다. 덜컹거리는 기차바퀴 소리에 옛 생각이 떠오를 때면 눈은 먼곳 산줄기를 바라본다. 느리게 뒤로 밀려나는 산들이 마음에 남아 있는 추억 같다가도 기차가 달리는 속도로 스쳐가는 철길 옆 역새가 지나간 세월을 안고 가슴 속으로 쓰러진다.

반성해야 할 깨알 같은 시간들이 유리창 밖으로 흐른다. 따듯한 차 한 잔의 시간보다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에 아무렇게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소중한 건 여행이 주는 상념 때문일 것이다.

북한강을 거슬러가는 기차, 짧은 날 추억이 가득한 몇 개의 역을 지나고 목적지인 김유정역에도착했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플랫폼은 섬이다. 오고가는 철로 가운데 떠 있으면서 만남과 이별, 출발과 도착,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그렇지만 아무런 표정 없는 섬이다.

실레마을 김유정 문학기행의 출발점, 김유정 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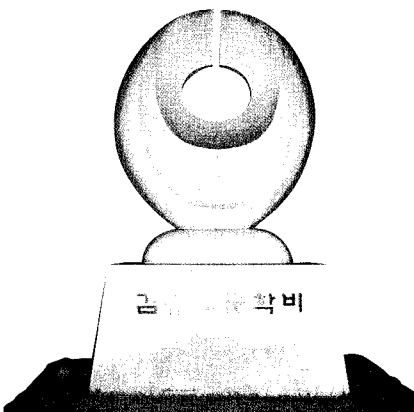
간이역 역사 앞 소나무가 역사와 어울려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김유정역은 남춘천역 바로 전 역인데, 2004년까지만 해도 이름이 신남역이었다. 그 해 12월 1일 김유정역으로 바뀌었다. 역이 있는 마을에서 김유정이 태어나고 자랐다. 그래서 김유정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마을 이름은 실레마을이다. 역을 빠져 나와 도로를 건너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여느 시골마을과 다를 것 없는 풍경 그대로다. 관광지처럼 개발된 곳 하나 없는 순박한 시골풍경이 여행자의 발걸음을 유혹한다.

실레마을 김유정 문학기행의 출발점을 김유정 생가로 잡았다. 김유정 생가는 2002



① 김유정 생가 마당에서 올려본 사진 'ㄱ'자형 한옥은 하늘을 담고 있다.
 ② 봄봄의 배경지. 돌담 따라 흙길을 걸으면 풋풋한 사과 향기가 몸에 스며든다.



년에 복원됐다. 기념관과 동상, 생가와 정자마당, 장독대 등이 있다.

생가는 'ㄱ'자 형태다. 벽이 울리고 방이 집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다. 네모반듯한 마당 그 모양으로 지붕과 지붕 사이에 하늘을 담은 마당이 있다. 뒷마루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을 담은 마당이 초가지붕에 걸려있다. 그 속에는 늘 구름이 박혀 있고, 해와 달이 시간을 바꿔가며 금빛 은빛 가루를 뿌린다.

초가 마당이 가장 화려할 때는 햇볕 쏟아지는 오전이다. 그때 햇볕은 무엇인가를 포근히 감싸기보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햇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마당에서 반사된 햇살의 조각들이 일 년 내내 햇볕 한 줍 들지 않는 처마 밑이며 서까래까지 비춘다. 활기와 아늑함이 함께 깃드는 시간이다. 김유정 생가에서 하늘 담은 마당 하나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례마을 전체가 김유정의 흔적들로 가득하다

생가 옆에 있는 전시관에서 실례마을 지도를 얻어 발걸음을 옮긴다.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가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난다. 마을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돌담이 집 안팎을 나누고 있지만 허리춤에도 못 미치는 높이에 안과 밖이 하나다. 게다가 돌담은 곳곳이 무너져 경계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곳을 찾는 여행자에게 오래된 시골마을 풍경을 선물한다.

햇살이 눈독길 같은 골목길까지 내려와 길을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김유정이 드나들었던 주막집이라는 안내판이다. 이곳은 김유정이 자주 들러 '코다리찌개' 안주로 술을 먹던 곳이다. 읍내 학생들이 시비를 걸어와 싸움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소설 <솔>에 나오는 들병이와 근식이 장래를 약속하던 주막집이기도 하다.

<봄·봄>의 봉필영감 집터 또한 그대로 남아 있다. 배참봉택 마름으로 나오는 김봉필은 실례마을에서 육필이로 통했던 실존인물이다. 그는 당시 딸만 여섯 낳아 데릴사위를 들여 부려먹기도 하고, 금병산 산림감시원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두루 인심을 잃었다. 점순이와 성례는 시켜주지 않고 일만 부리는 장인과 주인 공이 드잡이 하던 곳이다.

특히 <봄·봄>은 주인공뿐 아니라 보조인물들도 전부 실존인물이다. 작품에 나오는 봉필은 본명이 김종필이었으며 그 딸인 여주인공 점순이의 이름은 김씨만이였다. 또 봉필의 데릴사위로 나오는 나(머슴)는 최순일이란 사람이였다.

김유정이 한들 주막에서 술 한 잔 걸치고 백두고개(박두고개)를 넘어오다가 김씨만(작품 속 점순이)과 혼례를 시켜주지 않는다며 장인인 김종필(작품 속 봉필)과 최순일(작품 속 나)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메모해 두었다가 <봄·봄>의 한 장면에 이용했던 것이다.

<산골나그네>에 나오는 덕돌네 주막도 실제로 존재한다. 소설에서 '처음 보는



① 김유정기념전사관 ② 금병의숙 바석 ③ 김유정은 백두고개 넘어 팔미천에서 미역 감고 놀다 덕돌네 주막에서 한 잔 하고 백두고개 넘어 다시 실레마을로 돌아 올 때도 있었다.



아낙네가 마루 끝에 와 섰다. 달빛에 비끼어 검붉은 얼굴이 해쓱하다. 추운 모양이다. 그는 한손으로 머리에 들렀던 왜수건을 벗어들고는 다른 손으로 흠어진 머리칼을 씨담어 올리며 수줍은 듯이 주뻔주뻔한다. “저어 하룻밤만 드새고 가게 해주세유.” 남정네도 아닌데 이 밤중에 웬일인가, 맨발에 짚신짝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은 실제로 김유정이 팔미천에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주 들른 주막이다. 김유정은 우마차길 옆 덕돌네 주막에서 덕돌 어멈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김유정 생가 앞에는 금병의숙을 짓기 전에 움막을 짓고 야학을 하던 곳이 있다. 움막에 불이 났을 때 김유정이 야학 아이들을 구해낸 일화도 유명하다. 금병의숙터는 김유정이 마을청년들과 금병산과 생가 앞 미루나무를 배어 손수 만들어서 간이학교로 인가를 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농우회와 부녀회, 노인회를 조직하여 농촌운동을 벌였던 곳이다. 현재 금병의숙터에는 김유정 기적비와 금병의숙을 세운 기념으로 심은 느타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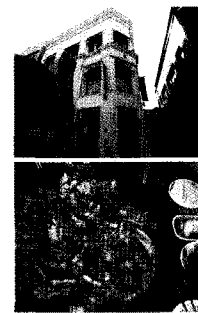
한들주막에서 박두고개 넘어 실레마을로 오는 길

실레마을에서 박두고개를 넘어 가는 길이 있었는데 김유정은 종종 박두고개를 넘어 팔미천에서 미역을 감고 한들주막에서 한 잔 걸친 뒤 다시 박두고개를 넘어 실레마을로 돌아왔다고 한다.

지금은 옛 고갯길이 아니라 도로를 따라 한들마을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다. 한들마을은 이름처럼 넓은 들판을 품에 안은 넉넉한 마을이었으며, 팔미천은 가을색을 품고 있었다. 팔미천 다리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마을이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가에 앉았다. 납작한 돌을 골라 물수제비를 떴다. 돌맹이가 스치고 지나간 수면 위로 여러 개의 동심원이 겹쳐지며 물결이인다. 김유정도 이 가을에 나처럼 이곳에 앉았다면 물수제비를 뜨고 상념에 잠겼으리라. ㉞

TR

춘천여행의 마침표, 춘천 닭갈비



춘천시 변화가인 명동 뒷골목에서 '춘천 닭갈비' 맛이 50년 세월 동안 익어가고 있다. 닭갈비 골목에 있는 한 식당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닭갈비 골목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넘어오면서 시작됐다.

언제부터인가 이 골목에는 춘천 사람보다 외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춘천 닭갈비 맛에 여행자들은 춘천에 가면 닭갈비를 먹어야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기분 때문은 아닐까.

심지어는 닭갈비를 먹기 위해 이 골목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90년대는 춘천에 있는 미군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골목 단골이 된 미군들도 몇몇 있다. 일본 여행자들은 일본에서 춘천 명동 뒷골목까지 길을 물어 닭갈비를 찾아오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코스에 춘천 닭갈비 골목 탐방도 들어갈 정도니 이제는 춘천 닭갈비의 맛이 세계의 맛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닭갈비 골목을 키워온 주인공은 뭘니뭘니해도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 닭갈비의 맛과 푸짐한 양이다. 떡과 각종 야채, 면사리 등 각종 사리가 닭고기와 어우러져 맛이 풍요롭다. 특히 이 모든 재료를 하나의 맛으로 만들어 주는 그 양념맛은 전국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맛이다.